

바케토

바케토는 재롱꾼을 말하는데, 때로는 무서운 분장을 한 옛날 서커스 광대와도 유사합니다. 바케토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관중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네부타가 통과하고 다음 네부타가 올 때까지 틈틈이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케토는 메이지시대(1868~1912)에 이미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스폰서 캐릭터로 분장하여 홍보를 하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케토 수가 춤꾼인 하네토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케토에는 서커스의 괴력남이나 여자처럼 요염한 의상을 입은 남성 등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지금은 바케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줄었고, 하네토나 하야시카타(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로 네부타 마쓰리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케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된 바케토보존회라는 조직도 있습니다.